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TRADE, INDUSTRY & ENERGY

보도참고자료

희망의 새시대 http://www.motie.go.kr

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문의: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진흥과 김종철 과장(010-9416-7784)
김진 팀장(010-8637-7425), 이석호 주무관(010-8709-8576)

발전업계 글로벌 수준 기술력 확보를 위해 함께 뛴다!

- 한진현 산업부 차관, 한전·발전사 사장단 간담회 개최 -

□ **한진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**은 **3.26(수) 8시, 인터콘티넨탈 코엑스 호텔**에서 **한전·발전사 사장단과 간담회**를 갖고 **화력발전 분야 기술력 현황과 향후 경쟁력 제고 방안을 논의**하였음

* 참석자 : (산업부) 한진현 차관, 채희봉 에너지산업정책관, (산업계) 조환익 한전 사장, 허엽 남동발전 사장, 이상호 남부발전 사장, 장주옥 동서발전 사장, 조인국 서부발전 사장, 최평락 중부발전 사장, (전력기술평가원) 안남성 원장, (R&D전략기획단) 박상덕 에너지MD

□ 이번 간담회는 그간 **전력산업의 양적 성장에도 불구, 핵심기기는 여전히 외국에 의존**하고 있는 **화력발전** 분야의 **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**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되었음

○ 참석자들은 그동안 **정부의 예산 지원, 발전사·민간기업의 자체 투자** 등을 통해 **기술개발을 지속**해 왔으나, **핵심 발전설비** 분야의 **기술력 확보가 미흡했다**는 점을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고,

○ **전통적인 화력 발전설비**에 **ICT와 과학기술**을 접목한다면 **창조경제를 견인하는 신 성장동력**으로 육성할 수 있다는 점에 공감하면서 화력발전 R&D 전반을 조율하는 **컨트롤타워**의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같이 하였음

□ 이 자리에서 한 차관은 국내에서 개발된 신기술은 각 발전사들이 주요 수요처인 만큼, **발전사들의 역할이 화력발전 산업의 경쟁력에 매우 중요한 역할**을 한다고 강조하면서,

○ **정부·발전사·민간기업간 협업 강화, 화력발전 유관기관간 공동 R&D 확대** 등을 통해 **핵심 기술력을 조기 확보**함으로써,

○ 현재의 발전설비의 수요시장이 아니라 앞으로는 **해외시장 진출 기지**로 변모해 줄 것을 당부하였음

□ 이에 대해 한전과 발전사 사장단들은 **공동 R&D 과제 발굴·투자와 실증사업 등을 통해 발전설비의 국산화율 제고**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음

○ 또한, 국내 개발된 신기술을 발전소에 적용시 **발전사의 위험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**를 마련할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산업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추진하기로 함

□ 이번 간담회는 외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핵심기술은 대외 의존도가 높은 **국내 발전분야에 대한 객관적이고 냉정한 평가를 바탕으로 종합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시발점**이 되었으며,

○ 향후 정부, 한전·발전사, 민간기업, R&D 전담기관, 전문가 등이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**R&D 경쟁력 강화, 핵심기기의 국산화율 제고 등을 위한 추진동력을 확보**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됨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진흥과 이석호 주무관 (☎ 044-203-5270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